

### 조계사에서 '행복한 가정' 법문

히로니카 구니미츠 스님 (일본 정토종 21대 주지)

#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히로니카 구니미츠는... 일본 정토종 21대 주지인 히로니카 구니미츠 스님은 1996년부터 청소년·가족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9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담한 스님은 아이들을 다시 부모의 품으로 또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스님은 현재 일본 전역을 돌며 1년에 200회 이상 강연을 하고, TV보도, 다큐멘터리, 연예 프로에도 출연하고 있다. ‘즐거움 마음 갖기’ ‘작은 선행’ ‘타인의 행복 빌기’는 스님의 상담 3원칙이다. 스님은 현재 암과 투병중이다.

가족이지만 소통이 잘 안 되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가지만 하는 부모와 자녀. 그들의 마음이 비틀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화목한 가족관계를 되찾을 수 있을까? 히로니카 구니미츠 스님은 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에서 20년 동안 청소년 상담을 해온 히로니카 스님은 지금까지 9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담했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발간된 《약동스님은 천사래요》의 저자이기도 한 스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부모와 자녀, 청소년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의 고민을 듣고 치유해주는 훌륭한 멘토이기도 하다. 히로니카 스님이 한국을 방문 조계사에서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11월 21일 약사재일을 맞아 조계사에서 강의한 히로니카 스님은 일도 공부도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오늘 약사재일이죠? 저는 올해 2월 암선고를 받았 습니다. 진단대로라면 앞으로의 삶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 다. 제가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의 사 선생님이 매일 회진을 오실 때마다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해주셨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저를 찾아주시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 거죠. 우리는 모두가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전이되었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쾌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9월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근처 문방 구에 들리니 주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반갑게 맞아 주더군요.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 말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는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약사재일을 맞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약사여래 부처님 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절에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거식증 과식증 환자, 자살 하고 싶은 아이들 모두가 찾아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 들 곳인 아이들이 우리 절을 찾고 있는거죠.

지난 20년 동안 900여 명의 아이들과 상담을 했습 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주말만 찾아오 는 아이, 저녁만 먹으러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지금

도 대기가 2천 여명이 넘습니다. 절에서 상주하는 아이들은 여기서 밥 먹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야말로 마음이 갈 곳이 없는 이들입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병을 얻는 것 도 죽음을 맞는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적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부처님 가난한 자든 지켜보고 계 십니다.

어느날 우리 절에 보살님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잘 못하는 자녀였 죠. 이 엄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죽이고 나 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죠. “아이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마음을 열면 아이도 마음이 열립 니다”

이런 할머니도 있었죠. 눈이 안 보이는 손자를 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매일 손자를 데리고 와 절 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보이도록 해달 라고 말이지요. 매일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아이 보 인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구가 없으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저는 그분에게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오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선천적으

#### 서로 연결된 삶의 힘 긍정적 사고 매우 '중요' 마음 열고 최선 다해야 “반보만 앞으로 나아가세요”

로 안구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마 학원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할머니도 손자도 영영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 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 리면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 침입니다”

매일매일 많은 아이들이 절을 찾아옵니다. ‘도와 주세요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암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까지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 힘든 삶 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 발이 힘들면 반보라도 앞으로 나아가보라고 말합니 다. 용기를 내라 열심히 해라 항상 이렇게 부처님께 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 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가족 에게도 이런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엄마 아버지 할 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서 참 좋습니다. 하루 하루 이 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에서도 마음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안따들림, 자살 이런 문제는 일본에서도 또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 들을 구해야 합니다. 왕따 피해를 당해 자살한 아이 를 부모들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합 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런 경우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목숨을 끊을 때까지 몰라본 부모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 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의 외침을 못 듣고 있 습니다. 저는 어제도 한국의 중학생들을 만나 강의 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힘들고 지치면 저에게 오 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절로 오라고 말이지요. 저 는 이렇게 두 팔을 벌려 항상 저에게 오라고 말을 하죠.

저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에게 3가지를 강조합 니다. 첫째 즐거운 마음을 갖자. 둘째 조금이라도 남 을 위한 삶을 살자. 셋째 타인의 행복을 빌자. 이렇게 말입니다. 즐거움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 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항상 저희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작은 선 행부터 시작해보십시오. 주변에 휴지라도 줌과 담배 꺾조라도 주워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을 넘어 많 은 분들의 행복을 베푸는 기도를 시작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들니 까?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 만나기도 얼마나 힘 든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과의 만남은 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났 기 때문에 김치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한국에서 불교가 전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일본인들이 불교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 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인연 이죠.

용기를 내어 즐겁게 살아가라고 부처님께서는 향 상 말씀하십니다. 힘들다면 반보 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공부도 운동도 또 여러분 들이 김치 담글 때도 반보만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 오. 먼저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암투병중이지만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 다. 절대 도망치지 말자 도망치면 쫓긴다 반보만 앞 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보만이라 도 앞으로 나아가면 어려운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 다. 저 또한 반보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극복하고 내내에도 뵈겠습니다.



히로니카 스님이 약사재일을 맞아 11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li> <li>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li> <li>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li> <li>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li> </ul>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특별강사: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대 상: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특 전: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바른자세헬스케어진흥원**  
Straight Posture Health Care P.A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임각해 흠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함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교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전 클릭  
주·야 상담합니다